



2013 하계U대회 광주에서

3 시민 참여가 관건

# 시민들 열망·열정이 유치 동력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역에 유치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지 방문 실무자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교통여건 등 함께 '주민 열의'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대회 준비와 개최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동력이다. 대구(2003년)와 터키 이즈미르(2005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2009년) 등도 모두 시민들의 열정과 높은 효율을 바탕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를 유치했다.

특히 U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만큼 지역 대학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다. 광주에는 16개에 달하는 대학이 있어 자원은 충분하다.

하지만 2013년 U대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오는 5월 말까지 90여일 동안 새 정부 출범과 총선 등 대형 정치 이슈들이 맞물려 있어 U대회 유치로 이목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

## 한마음 대회·서명 운동...봄 조성 총력 지역대학·대학생들 참여가 성공 열쇠

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2013 하계U대회 광주 유치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지난 19일 '범시민 봄 조성 계획'을 발표, 참여 열기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각계 각층의 지원단 구성을 통한 범시민 지원체계 확립과 언론 매체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범국민 서명운동 등이 그 골자다.

시는 우선 이 달말까지 10만 명 규모의 범시민지원단을 모집, 다음 달 11일 발대식을 갖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대회 확정때까지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범시민지원단은 U대회 광주 유치 봄 조성을 위한 홍보와 기초조사 등 의식 제고 운동, 현지 실사단 방문시 환영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5개 자치 구도 각각 별도의 유치지원단 발대

식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13일에는 옛 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U대회 유치 기원 시민 한마음대회'를, 23일에는 영주체육관 광장~신대4거리 구간에서 범시민 건강걷기대회, 28일에는 U대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식목행사를 상무시민공원 등에서 개최한다. 또한 3·1절 마라톤 대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내 주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대학교포츠연맹(FISU)의 유치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하는 시기(4월 예정)에 맞춰 언론 홍보를 극대화해 지역의 유치 열기를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U대회 관련 블로그 제작과 시·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한 홍보도 본격화

된다.

이에 앞서 시는 18일부터 시청사와 광주역,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등 시내 다중집합장소 13곳에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며 학교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홍보도 병행된다.

U대회 유치 봄 조성과 시민홍보 활동에 참여할 '대학생 지원단' 모집도 시작했다. 광주시와 광주·전남대학생총연합회는 다음달 3일까지 700여명의 대학생 참가자를 모집, 13일 시청에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2003년 대구하계U대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박상하 2013 광주하계U대회유치위원회 상임고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구U대회 성공의 원천도 시민들의 힘이었다"고 말했다.<글>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기차가 돌아왔다' 전시회 (사)광주푸른길가꾸기 운동본부는 28일 광주시 동구 학동 옛 남광주역 푸른길 공원에서 푸른길 주변의 이야기를 작가들의 그림과 자료 등으로 꾸민 '기차가 돌아왔다'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놀이매 공연, 진도복놀이, 제막식 등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탄력

市, 국방부와 불발탄 제거 앞당기기로 합의

광주시에 국방부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불발탄 제거 작업을 당초보다 1년가량 앞당기기로 합의, 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에 "27일 국방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갖고 다음달 3일부터 굴삭기 등 300여대의 장비를 집중 투입해 불발탄 제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의에서 당초 2010년 11월까지로 예정된 불발탄 제거작업을 1년가량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불발탄 제거작업이 완료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기반조성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불발탄 제거작업은 전체 대상 153만㎡ 가운데 25.1%가 완료돼 178발을 제거했으며 겨울철을 맞아 작업이 잠시 중단됐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발탄 제거작업 기간 중 어등산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로 입구에 경고 간판과 입산 통제,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했다. 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민원상황실(전화

062-945-9314)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작전지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부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51년부터 1995년까지 육군 포사격장으로 활용된 어등산 피탄지역에는 불발탄 2천300여발, 파편 5천만개 등이 매몰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은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273만2천여㎡에 3천 40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빛의 광장, 빛의 전망대, 호텔, 골프장 등 서민권 관광 거점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최초 태극기' 원형 찾았다

독립기념관, 영국립문서보관소서 발견

국내 최고(最古) 태극기 원형(사진)이 발견됐다. 독립기념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882년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선상에서 제작한 태극기 원형을 그대로 그린 자료를 지난 2월 초 영국 국립문서보관사에서 발견하고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독립기념관 김삼웅 관장은 "이 태극기는 1885년 고종이 만든 것보다 3년이 앞섰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 태극기가 1882년 11월 1일 당시 일본의무



성 의무대보(차관) 요시타 기요나리가 주일 영국공사인 해리 파크스에게 보낸 문서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태극기의 원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 태극기의 원형이 발견되어 공개됨으로써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 5·18 역사·사상 담은 대학교재 펴내 광주지역 강좌 개설 대학들 교재 활용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사상을 체계적으로 담은 대학교재가 대학교수와 5·18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출판됐다.

28일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오월의 역사와 사상이 담긴 '5·18 그리고 역사(사진)'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돼 5·18 관련 강좌를 개설한 광주지역 주요 대학의 교재로 활용된다.

이 교재는 5·18 민주와 운동과 관련된 평소 관심을 보여온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교수 9명이 지난 2년간 5·18 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끝에 거둔 성과다. 이들은 최근 이번의 주요 대학에서 5·18 관련 강좌를 잇따라 개설하는데도 마땅한 교재가 없자 체계적으로 다른 교재를 집필기로 결정했다.

1부, 2부, 3부로 나뉜 420쪽 분량의



이 교재는 ▲5·18 역사와 배경 ▲5·18과 문화운동 ▲동아시아 민주와 운동 비교 ▲5·18 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징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과거 5·18 관련 교재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전남대 사학과 최영태 교수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다룬 교재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며 "이 교재를 통해 광주의 오월에 대해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교수는 집필자 9명은 이날 광주시 서구 5·18 기념문화관 대강 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종형 기자 golee@r>



서부경찰 다문화 가족 지원 (사)서부경찰(서장 김철성)은 28일 회의실에서 자매결연 세대인 다문화가족 15세대 30명을 초청,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소액원 관람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서부경찰은 다문화가족 15세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내 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서부경찰 제공>

## 광주북부소방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광주북부소방서는 내달 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등을 집에서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대상 민원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비롯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현장 방염처리 물품 및 성능검사 신고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퇴직신고서 ▲제조소 등 폐차 신고서 등 5개 부문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건번호 361-8111 / 사건번호 529-8111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PSA 과학 전문 학원**

과학 교육의 필요성

과학 전문 학원

과학 교육의 필요성

과학 전문 학원